

목포시 육묘장 직영...예산 절감·경관 개선 ‘일석이조’

꽃묘 80만본 자체 생산 3억2천만원 절약
주요 관광지·시가지 화단·교통섬 등 식재
매년 봄 23개洞행정복지센터 분양 지원
市 “효율적 재정 운영 맞춤형 행정 박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가 직영 육묘장을 활용한 꽃묘 자체 생산과 식재로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쾌적한 도심 경관을 조성하는 등 적극행정을 통해 1석2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15일 목포시에 따르면 석현동 직영 육묘장 하우스 10동에서 꽃묘 생산부터 식재까지 전 과정을 추진해 꽃 구입 예산 약 3억2천만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자체 생산한 80만본의 꽃묘는 주요 관광지와 시가지 화단, 교통섬, 대형 화분 등 도심 곳곳에

식재해 계절별로 특색 있는 꽃 경관을 연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국화 3천본을 시민의 날과 목포 항구축제 행사장 등에 배치해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주요 나들목과 교통광장, 해안로 일대에도 가을꽃을 집중 식재해 시민에게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방문객에게는 아름다운 낭만 항구도시 목포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있다.

계절별 꽃 경관 조성을 통한 지역 환경 개선에도 주력하고 있다. 매년 봄에는 23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공한지 꽃밭 조성용 꽃묘를 분양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주변 유휴 공간을 아름다운 꽃밭으로 가꿀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같은 성과는 한정된 시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시민 제감항 행정서비스를 대폭 강화한 모범적 적극행정 사례로 평가받는다.

현장에서 꽃묘 생산부터 식재까지 온전히 책



목포시가 직영 육묘장을 통한 자체 꽃묘 생산·식재로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쾌적한 도심 경관을 조성하고 있다. 사진은 석현동 직영 육묘장 하우스에서 작업자가 꽃묘를 관리하는 모습. <목포시 제공>

임지는 방식은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막는 동시에 사업의 지속성과 효율성을 한 단계 높였다. 이는 민선 9기 강성희 시장이 핵심 시정 방

침으로 내세운 ‘일 잘하는 혁신행정’과도 일맥상통한다.

목포시는 청렴·적극·현장행정을 강화하고 조

직과 재정, 업무 방식의 과감한 혁신을 통해 시민 신뢰를 높이는 한편, 시민이 정책을 만들고 행정이 함께 실행하는 지속 가능한 시민주권 도시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사계절 꽃피는 가로경관 조성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꽃묘 자체 생산·식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예산 절감 효과를 극대화하고 시민과 관광객이 사시사철 아름다운 도심 풍경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도시경관 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최양선 공원복지과장은 “꽃묘를 생산하고 식재하는 획기적인 방식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동시에 시민과 관광객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경관을 제공하고 있다”며 “효율적 재정 운영과 시민 눈높이에 맞는 현장 중심의 행정을 통해 사계절 내내 꽃피는 아름다운 항구도시 목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신안 흑산도 7개 낙도 공영화물선 운항

228t급 투입...군민 차량 운임 2천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이 15일부터 흑산도 예리항을 기점으로 주변 7개 낙도에 228t급(중형 승용차 17대 적재 가능) 공영화물선(사진)을 본격 투입했다.

대도도와 다물도는 주 3회, 홍도·영산도·장도·하대도·상대도는 주 1회 정기운항할 예정이다.

그동안 흑산도 인근 작은 섬들은 운송 물량이 적은 탓에 민간 화물선이 부정기 운항해 주민 불편이 컸다.

생필품이나 LPG 가스, 건축자재 확보는 물론, 생계와 직결되는 수산물 택배 수송마저 제때 이뤄지지 않았으며 홍도 등 주요 관광지에서는 생활 쓰레기 반출 지연으로 골머리를 앓기도



했다.

군은 공영화물선을 투입하며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차량 운임 체계도 개편했다. 신안군민의 경우 중형 승용차 및 1t 이하 화물차량 운임 2천원만 내면 이용할 수 있다.

김태성 신안군수는 “먼 섬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정주 여건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해상교통 인프라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신안=양훈기 기자



장세일 영광군수, 산물벼 매입 현장 점검

올해 3만여t...잔류농약 주의 등 당부

장세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수가 벼 수매 절을 맞아 2026년산 산물벼 매입 현장인 영광통합RPC(영광·백수·서영광DSC)를 방문해 매입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농가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사진》 올해 영광군의 벼 매입 물량은 공공비축미 8천607t과 영광통합RPC 자체 매입 3만t을 합쳐 총 3만8천607t에 달한다.

공공비축 매입 품종은 신동진과 새청무 2종이다. 산물벼는 오는 30일까지 영광통합RPC에서 미리 사들이고, 건조벼는 11월부터 읍·면별 정부양곡 보관창고를 통해 매입한다.

대금은 40kg 포대당 6만원의 중간정산금을 농가에 우선 지급한 뒤 수확기 산지 쌀값을 반영해 12월 중 최종 정산해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군은 지정 품종 외 벼가 20% 이상 혼입되거나 친환경 벼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될 경우 향후 3년간 공공비축미 매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출하 전 농가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한 해 동안 땀 흘려 벼를 수확한 농가 모두 좋은 등급을 받기를 바란다”며 “농가가 희망할 경우 친환경 벼를 전량 매입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등 고품질 영광 쌀 유통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영광=김동규 기자

진도군, 농어촌 기본소득 유치 설명회

오늘까지 7개 읍·면 사업 취지 등 공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은 15일 “진날의 신면·진도읍·고군면을 시작으로 15일 군내면·지산면, 16일 임회면·조도면 등 7개 읍·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순회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도입 취지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지역사회에 미칠 긍정적인 변화와 경제적 파급효과를 주민들과 공

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 참석한 군민들은 기본소득이 단순 지원을 넘어 지역 내 소비를 진작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해 소멸 위기를 극복할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

군은 현장에서 수렴된 주민 의견과 유치 열기를 한데 모아 향후 예정된 공모 평가에 전방위 대응할 방침이다. 최종 공모 선정을 위한 범군민 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진도=박세권 기자

해남 로컬푸드 직매장, 먹거리 선순환 거점 안착

개장 5주년 누적 이용객 59만명 기록

매출 161억·지역먹거리지수 대상 영예

713농가 참여 취급 품목 809개로 확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로컬푸드 직매장이 개장 5년 만에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의 핵심 거점으로 안착하며 농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15일 해남군에 따르면 로컬푸드 직매장은 개장 이후 누적 이용객 59만명, 누적 매출액 161억 원을 기록했다.

개장 당시 104곳이던 참여 농가는 713곳으로 7

배 가까이 늘었고, 취급 품목도 210개에서 809개로 대폭 확대됐다.

정기 이용 소비자 회원도 9천852명에 달해 중소농의 판로이자 신선 먹거리 창고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군은 대도시가 인접하지 않은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소비자 초청 농가 체험, 어린이 장보기 행사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목포 등 인근 지역으로 로컬푸드 식재료 공급을 늘리고 로컬데이를 개최하며 소비 접점을 꾸준히 넓혀가고 있다.

그 결과 전남지역에서 유일하게 6년 연속 농식품바우처 사업을 시행한 것은 물론, ‘2025년 지역먹거리지수 평가’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

했다.

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 역시 직매장(161억원)과 공공급식(104억원)을 포함해 총 265억원의 통합 매출을 기록하며 탄탄한 지원 체계를 증명했다.

앞서 군은 지난 13일 개장 5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전 품목 20% 할인, 우수 생산자 시상, 매일 시장 5천원 쿠폰 증정, 백설기 나눔 등 고객 사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그동안 매장을 찾아준 군민과 청정 먹거리 생산에 힘쓴 농업인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농산물로 군민 건강을 증진하고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필용 기자

완도군, 42억 투입 ‘인공 신장실’ 신축

총28병상 규모 내년 4월 완공 목표

원정 투석 불편 해소 의료 접근성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이 혈액투석 의료 서비스 기반을 확충하고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총 28병상 규모의 ‘인공 신장실(조감도)’을 신축한다.

내년 4월 완공을 목표로 지방소멸대응기금 34억9천200만원과 군비 7억5천만원 등 총 42억4천200만원이 투입된다. 인공 신장실은 완도를 가용리 일원에 지상 2층, 연면적 466.15㎡ 규모로

건립된다.

건물 1층에는 홀과 물탱크, 펌프실, 의료 가스 시설 등이 들어서며 2층에는 B형 간염 보균자 전용 병상을 포함해 총 28병상의 혈액 투석실이 조성될 예정이다.

시설이 본격 운영되면 그동안 정기 혈액 투석을 위해 타 지역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야 했던 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되고 보다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앞서 인공 신장실 사업은 2022년 첫발을 뗀다 시공사 폐업과 현장 여건 악화 등으로 지연됐다. 하지만 군이 선금·계약 보증 보증을 통해



사업비를 전액 회수하며 군비 손실 없이 이달 재착공했다.

김신 완도군수는 “혈액 투석이 필수적인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며 “군민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의료 인프라 확충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윤보현 기자



무안군 몽탄면 식영정 일원에서 개최된 ‘2026 몽탄 코스모스축제’를 찾은 방문객들이 활짝 핀 코스모스 사이를 거닐며 가을 정취를 즐기고 있다. <무안군 제공>

무안 ‘몽탄 코스모스축제’ 성료

식영정 일원 첫 야간행사·불꽃쇼 눈길

공예 체험·사회단체 먹거리 부스 호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은 15일 “최근 몽탄면 식영정 일원에서 열린 ‘2026 몽탄 코스모스 축제’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영산강변과 코스모스 꽃밭을 배경으로 펼쳐진 축제는 올해 처음으로 야간행사를 도입해 주

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개막일인 지난 9일에는 야간조명 점등식을 열어 아름다운 꽃밭 야경을 선사했으며 방문객들은 청사초롱을 들고 색소폰 연주와 함께 데크길을 걸으며 가을밤 정취를 만끽한 뒤 화려한 영산강변 불꽃쇼를 감상했다.

현장에서는 코스모스 도자기·친환경 세제 만들기, 비즈·슬라임 공예, 즉석 사진 인화, 페이

스 페인팅 등 체험과 함께 사진 공모전·스탬프 투어·바블쇼·버스킹 공연·포토존 등 풍성한 즐길 거리가 운영됐다.

또한 지역 여성단체협의회가 간식 나눔을 진행하고 새마을부녀회와 주민자치위원회 등이 먹거리 부스를 운영하는 등 사회단체들도 축제 운영에 동참해 따뜻한 정을 나눴다.

무안군 몽탄면 관계자는 “찾아주신 방문객과 축제 준비·운영에 함께한 주민·사회단체에 감사드린다”며 “자연경관과 지역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해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축제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무안=김상호 기자